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분석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허 은 지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오랜 기간 낮은 여성 고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출산과 육아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해 왔다. 이러한 분석들은 기혼자이면서 출산을 경험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 여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 요인으로 결혼을 고려해본다. 결혼은 여성의 노동공급여부와 역 인과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생성 문제에 주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가족패널 1차에서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혼과 취업여부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활용, 성향매칭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결과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법론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결혼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생성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추정치는 과대 추정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들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결혼, 여성 노동공급

학 번 : 2013-2017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본 논문의 기여와 구성	5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7
제 1 절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
제 2 절 결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9
제 3 장 실증분석	11
제 1 절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11
제 2 절 실증분석결과	16
제 4 장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

표 목 차

<표 1>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7
<표 2>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8
<표 3> 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19
<표 4> 여성의 종교유무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19
<표 5>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0
<표 6>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2
<표 7> 결혼여부 추정치 비교	23

그림 목 차

[그림 1] 결혼 전후 여성의 노동공급패턴	3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2013년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연간 128조원¹⁾이며, GDP의 14.2%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오래 전부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자본 손실의 문제는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생산 활동 계층인 20대에서 50대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대략 90%에 가깝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2/3수준인 60%정도이다. 따라서 손실된 여성의 노동력 활용은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고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률²⁾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 시행되어 오던 정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여성 고용률 증진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시간제 도입, 육아 휴직제도, 국립 어린이집 증설 등 육아 및 보육지원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³⁾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

1) 대출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비용을 들였음에도 경제활동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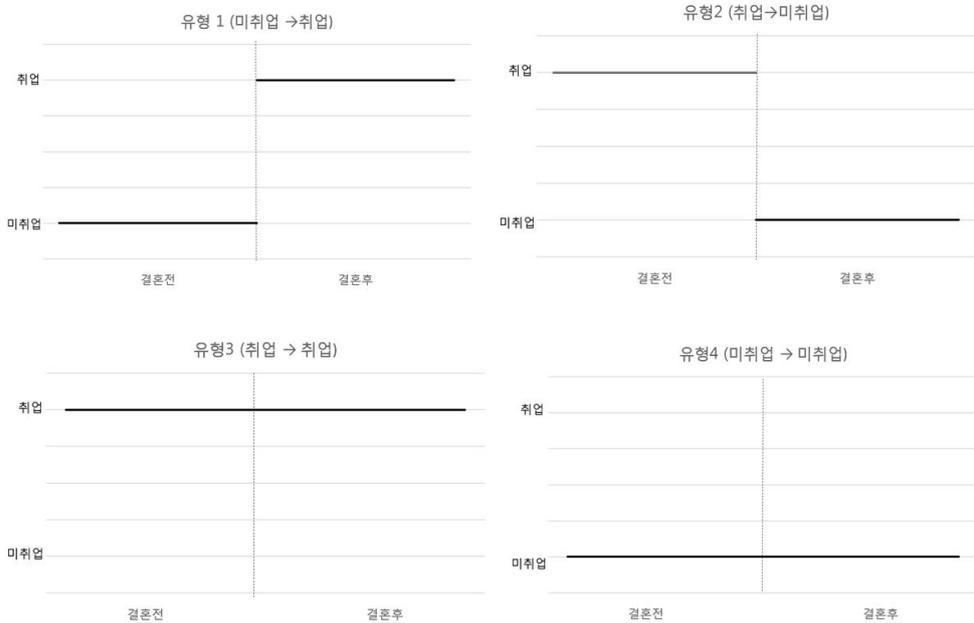
2) OECD 회원국 여성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2년을 기점으로 52.2%에서 2013년 53.7% 수준이다.

3) 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여성 경력단절예방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2014, 박수범 외

산은 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그 중 보육지원 관련 예산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출산과 육아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출산과 육아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 중 출산과 육아 이전에 결혼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대부분의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사건이며 이는 여성의 생애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여성의 결혼 그 자체보다는 많은 경우 결혼과 동시에 출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고 지내는 부부, 일명 ‘당크족(Dual Income, No Kids)’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정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연계성과 관계가 있다. 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면 이를 방지할 만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보,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이유로 여성이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이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정책적 함의를 지니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계기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분석은 해외 연구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지만, 결혼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유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음에도 여전히 성별 역할에 대한 이분화 된 관념들이 잔재하고 있다. 가정

[그림 1] 결혼 전후 여성의 노동공급패턴



자료: 여성가족패널 1차

의 주된 소득원은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가사는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설이다.

실제로 여성이 결혼을 전후로 노동공급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1]은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 자료⁴⁾를 이용하여 기혼여성 2,622명을 대상으로 결혼시점을 기준으로 노동공급패턴을 4가지로 유형화 한 결과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시점 기준은 결혼 전후 1년 이내를 말한다. <유형1>과 같이 결혼 전 미취업 상태에서 결혼 후 취업

4) 횡단면 자료가 결혼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후 일자리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고적 정보를 이용하여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상태로 변화한 여성은 전체 여성 중 5%, <유형2>와 같이 결혼 전 취업 상태에서 결혼 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은 전체 여성 중 32.1%, <유형3>,<유형4>의 경우 결혼 전후 각각 취업과 미취업 상태로 노동공급 여부에 변화가 없는 유형이다. 이는 각 30.4%, 32.3%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유형별 직업군을 살펴보면 결혼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2>에 속한 여성 중 49%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결혼 전후에 동일하게 노동공급을 지속하는 <유형3>의 경우에는 전문가 직업군이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전에는 62.6%의 여성이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31.6%의 여성만이 취업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결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별 그래프는 결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결혼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책은 결혼 후에도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혼한 이후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은 적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책은 여성의 고용률을 정부의 목표치⁵⁾까지 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취업상태로 남아있는 여성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결혼을 하는 여성의 수가 미혼 여성의 수를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성의 노동공급변화에 대한 분석은 전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여성 고용률 2012년 기준 53.5%에서 2017년 61.9%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 2 절 본 연구의 기여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관련하여 출산, 육아를 중심으로 분석해 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결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성의 노동공급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들의 20년 전 평균치인 55%정도에 머물러 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여성 고용률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50%를 웃도는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정책의 원인과 해결책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 중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맥상통하게 여성의 고용률 증진 정책 또한 주로 출산 보조와 육아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45.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육아, 임신·출산, 자녀 교육 등의 순이었다. 또한,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전후로 취업상태에 있던 여성 중 57.5%가 1년 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 물론 이러한 조사는 경력 단절 여성 및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선택편의를 안고 있는 통계 수치이며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 경력단절 원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정책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결혼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다수 발생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고용률 증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더불어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결혼 적령기의 비교적 젊은 여성이 퇴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시점의 노동시장 이탈보다도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에

있어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결혼은 모든 여성에게 무작위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여성의 가치관과 외부조건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직장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둔 여성이라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일보다 가정을 중요시 하는 여성이라면 노동공급을 포기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과 여성의 노동공급 간에는 이러한 역 인과관계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여성들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혼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간에는 통제되지 않은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편향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혜원, 2014; 김우영, 2003)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는 다양한 모형을 통해 결혼과 여성의 노동공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결혼이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만약 결혼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라면 여성의 고용률 증진 정책은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결혼의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및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본 연구가 기여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OECD국가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를 보면 역U자형을 형태를 띠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전히 M자형의 그래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운영(2006); 이해원(2014))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생애 주기적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경력단절 현상을 뚜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30대에 급락하여 남성보다 36.2%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뚜렷한 M자형을 보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특히 고학력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진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재취업 시에 과거의 일자리보다 질적으로 낮은 단순 업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및 우리나라의 노동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낮은 고용률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출산과 육아부담을 그에 대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념적인 인식이다.(이진경·옥선화(2009); 김지경(2003); 최요미(2006); 우석진(2010)) 현 여성 고용률 증진 정책 또한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에 중점을 두고 출산과 육아 지원 수준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방안’⁶⁾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적 사건 중 출산과 육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6) 2014년 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중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제도로는 돌봄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다.

제 1 절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 고용률 정체의 원인을 출산, 육아로 보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결혼을 그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김우영(2003), 민세진(2013), 이혜원(2014)등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이 그 자체로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도 출산보다 결혼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우영(2003)은 한국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과 별개로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률이 각각 11.8%, 8.7% 낮아진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결혼을 기점으로 1년 전부터 여성들의 취업률이 하락하여 결혼 직전에 급감하고 결혼 3년 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분석하였다. 민세진(2013)은 한국 노동패널 13차년도(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육아보다 결혼상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젊은 연령에 결혼한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2014)은 여성가족패널 1차년도(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만 25세-만 54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전후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 후 여성의 노동공급은 결혼 전에 비하여 23% 감소하며, 이는 첫 아이 출산 후 노동공급 감소폭인 7.6%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 2 절 결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검토

결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로는 유홍준,현성민(2010), 이상호,이상현(2011)등이 있다. 이상호,이상현(2011)은 결혼을 인적자본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결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패널 1차부터 11차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여부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홍준, 현성민(2010)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원자료에서 추출한 만 20세에서 만 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위세가 상위에 있을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진다. 이는 앞선 이상호,이상현(2011)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정 반대의 결론으로, 이상호, 이상현(2011)은 교육수준이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저학력 여성들이 비슷한 교육 수준의 남성을 찾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유홍준, 현성민(2010)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은기수(2002)는 취업유형별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결혼후퇴장형’, ‘비경제활동형’으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 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집단 구성원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불연속 취업형’과 ‘결혼후 퇴장형’에 속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연속 취업형’과 ‘비경제 활동형’에 속한 여성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교육수준 이외에 연령, 부모의 인적자본, 건강상태 등에서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기 소개한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하거나 결혼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출산 이전에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크게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탈에는 고학력자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은기

수(2002)에 따르면 ‘결혼후 퇴장형’에 속한 여성들의 학력이 다른 유형보다 높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그동안 육아, 보육지원만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던 여성 고용률 증진 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결혼’이라는 생애주기적사건에도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모두 결혼을 다룰 때에 간과해서 안 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결혼은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외적인 통제요인에 의해서도 일정부분 설명 될 수 있지만, 그보다 관측할 수 없는 개인의 가치관, 이를테면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참여 의지, 가족 형성에 대한 선호정도 등에 의해 많은 부분 설명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기에 결혼과 여성 노동공급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선택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결혼이 여성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활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고 있었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즉, 결혼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 간에 존재하는 통제되지 못한 체계적인 차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앞선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내생성 문제가 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과 비교·검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방법론에도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안고 있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해당 여성의 결혼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주된 설명변수로 볼 수 있는 ‘결혼’은 개인들 사이에 임의(random)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에 대한 의욕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아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가 존재할 경우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오차항(error term)과 결혼여부를 나타내는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과대 추정 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이때의 추정계수를 순효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편의 제거에 중점을 두어, 총 4가지 방법론을 이용한다. 내생성 문제 완화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각 방법론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4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 후 결과를 비교 및 검증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여 미혼자와 기혼자 간의 상이한 특성 내지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여부가 여성의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 모형에 일 선호도와 성 역할과 관련된 설문조사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보이지 않는 여성의 특성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에 대한 의욕이 큰 여성일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속변수인 취업여부가 결혼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관측할 수 없는 정보로 인해 결혼여부 변수가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높으

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결혼과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지만, 취업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는 2단계 도구변수 추정법으로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도구변수로는 종교 유무와 결혼가치관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모형에서 활용한 도구변수가 적합한 도구변수일 경우 효과적으로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모형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은 Rosenbaum and Rubin (1983)의 논문에서 분석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처치를 받은 관찰 대상자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처치를 받은 대상자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향점수매칭방법에서는 처치집단에서의 관찰대상과 성향점수가 비슷한 관찰대상을 통제집단에서 선택해서 그 차이를 처치효과로 본다. 여기서 성향 점수란, 각 관찰대상자들이 처치를 받을 확률을 처치 여부를 결정짓는 관측 가능한 변수를 통해 로짓 모형 또는 프로빗 모형으로 구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매칭방법을 사용한다. 사용된 매칭방법은 Nearest Neighbor 매칭, Radius 매칭, Kernel 매칭, Stratified 매칭이다. 각 매칭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먼저 Nearest Neighbor 매칭의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성향점수가 가장 비슷한 대상을 각각 추출해 일대 일로 매칭한다. Radius 매칭은 처치집단의 각 대상별 성향점수를 중심으로 사전에 지정한 일정 구간 내에 있는 성향점수를 가진 통제집단의 대상과 매칭한다. Kernel 매칭의 경우 역가중치를 이용한다. 즉, 처치집단 대상의 성향점수와 통제집단 대상의 성향점수 차이가 클수록 해당 차이에 따른 역가중치를 주어 매칭한다. Stratified 매칭의 경우, 성향점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

간 내에 속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상들을 매칭한다.

앞선 3가지 분석모형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분석모형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이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면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과 결혼여부 사이에 발생 가능한 상관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선택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수준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가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고정효과모형에 시차종속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전시점, 현시점, 미래시점의 결혼 상태와 전년도 취업여부와 의 교차항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1차년도(2007년)에서 4차년도(2012년)까지의 개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에서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한 자료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조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은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일자리용 설문으로 구분되며, 가족, 일, 일상생활의 3가지 주요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실태, 가족가치관, 건강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9,068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 9,997명을 원표본으로 한다. 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년)는 1년 주기, 3차년도(2010년)부터는 격년주기로 현재 4차년도(2012년)까지 조사된 상태이다.

여성가족패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패널 자료들에 비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여성가족패널 자료 구축 목적에 있어서 여성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큰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여타 다른 패널 자료들과 달리 가족, 커리어에 관한 가치관과 결혼, 출산과 같은 생애 주기적 사건별 세부적인 정보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횡단면 자료로는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패널 자료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결혼을 계기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만 2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여성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의 취업여부이다. 취업한 여성일 경우 '1', 미취업 여성일 경우 '0'을 부여하였다. 미혼자일 경우에는 현재의 취업여부를 사용하였으나, 기혼자일 경우에는 결혼 후 6개월 이후 시점의 취업여부⁷⁾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혼자의 경우, 현재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면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순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조사 시점과 결혼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여성의 경우, 현재 취업여부가 결혼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이가 있을 확률 또한 높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있어서 결혼의 효과와 출산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에 상이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선택했다. 또한, 혼전임신자의 경우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고 해도 출산의 효과와 결혼의 효과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의 결혼시점과 첫 자녀출산시점을 이용하여 혼전 임신자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결혼여부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취업여부를 결정할 만한 교육수준, 연령, 대도시 거주여부, 성장시절 어머니의 취업여부, 일에 대한 가치관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성향점수를 결정하는 결정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등 기본적인 변수에 여성의 월 소득, 결혼에 대한 가치관, 종교 여부 등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7) 횡단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패널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전·후 6개월 시점의 취업여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종속변수는 위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여부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횡단면 자료와 달리 미혼자와 기혼자를 구분하지 않고 현 시점의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 주요 설명변수는 결혼 여부이며, 시차 종속변수와 시차 결혼 여부 변수 교차항 및 시차 종속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즉, 전기의 취업 여부 변수와 전기, 금기, 다음 기 세 시점의 결혼 여부 변수와의 교차항 변수 세 가지를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결혼의 시점 및 전기의 취업여부가 현재 취업 여부에 미치는 차등적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2 절 실증분석결과

<표1>의 (1)열은 여성가족패널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히 결혼여부에 따른 취업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OLS(Ordinary Least Squared) 추정치이다. 이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보다 약 36.7%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열은 일반적으로 노동공급 결정식에 포함되는 연령, 학력, 대도시 거주 여부 등의 기본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의 OLS 결과 값이다.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성장시절 어머니가 취업 중이던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1)열과 비교해 볼 때,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후에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취업률 차이가 약 3%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앞서 제기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과대평가 된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3)열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⁸⁾’을 변수를 추가하여 보이지 않는 여성의 이질성 중 일부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일을 할 확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가치관 변수를 통제한 후 결혼여부의 추정계수는 개인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약 1%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이 결혼을 덜 하거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여성이 결혼을 더 하게 되는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추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를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처럼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설명변수로 선택한 설문 문항이 실제로 여성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자가 응답형식으로 얻은 변수이기 때문

8) ‘남자는 직장을 다니고 여자는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이 문항에 동의할수록 일에 대한 애착이 낮다고 가정하였다.

<표1>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취업여부	취업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0.367*** (0.022)	-0.334*** (0.025)	-0.326*** (0.025)
연령			0.066* (0.036)	0.061* (0.035)
연령제곱			-0.001* (0.0005)	-0.0009* (0.0005)
초졸이상	무학기준=0		0.349 (0.338)	0.348 (0.337)
고졸이상			0.421 (0.332)	0.419 (0.331)
대졸이상			0.547* (0.332)	0.543 (0.331)
석사이상			0.626* (0.334)	0.615* (0.333)
대도시거주여부			0.038** (0.017)	0.037** (0.017)
성장시절 母의 취업여부			0.008 (0.017)	0.009 (0.017)
일에 대한 가치관				0.036*** (0.010)
상수항		0.722*** (0.020)	-0.870 (0.654)	-0.894 (0.653)
표본 크기		3,168	3,168	3,168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에 응답자가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답변했을 시에는 가치관 설명변수가 대리변수(proxy)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2>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성향점수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를 구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에 대한 가치관, 교육수준, 종교여부 등의 결정변수가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성향점수로 점수화 한다. 이렇게 도출된 성향점수 즉, 결혼할 확률이 유사한 기혼자 및 미혼자를 매칭 하였을 때, 대체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8.8%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는 전체적인 방향은 <표1>의 결과 및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 매칭방법에 관계없이 결혼여부의 추정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표1>의 분석에서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여부와 취업여부 간의 역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편의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일에 비해 가정을 중시하는 여성이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효과가 모두 계수에 포함되어 과대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매칭방법	총 사례수		ATT	Std.Err	t-value
	처치집단	통제집단			
Nearest-neighbor	2,623	329	-0.003	0.046	-0.070
Radius	2,623	546	-0.145***	0.019	-7.315
Kernel	2,623	546	-0.115***	0.026	-4.334
Stratification	2,623	546	-0.088***	0.064	-1.366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9)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이 존재할 경우, Stratified 매칭방법이 가장 유용하기에 Stratified 매칭방법을 이용해서 도출한 추정치를 성향점수매칭방법의 대표 결과로 사용하였다.

<표3> 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결혼에 대한 가치관(IV1)	결혼비율	취업비율
매우 그렇다	0.910	0.428
조금 그렇다	0.836	0.421
조금 그렇지 않다	0.810	0.423
매우 그렇지 않다	0.783	0.379

자료: 여성가족패널 1차

<표4> 여성의 종교유무에 따른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

종교 유무(IV2)	결혼비율	취업비율
유(有)	0.860	0.401
무(無)	0.791	0.430

자료: 여성가족패널 1차

<표2>에서는 결혼을 결정짓는 개인적 특성변수들이 비슷한 기혼자와 미혼자를 찾아 매칭 후 취업여부의 차이(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1>의 선형확률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비해 내생성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5>는 내생성 통제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¹⁰⁾과 종교여부를 결혼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결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취업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도구변수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4>는 두 번째 도구변수로 사용한 종교유무와 여성의 결혼비율 및 취업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10)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수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설문문항에 대해 ‘매우그렇다-조금그렇다-별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자료를 이용했다.

<표5>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OLS 취업여부	1st stage 결혼여부	IV-2SLS	
			전체대상 취업여부	고학력대상 취업여부
결혼여부	-0.339*** (0.025)		0.083 (0.235)	-0.074 (0.265)
연령	0.072** (0.036)	0.421*** (0.023)	-0.104 (0.104)	-0.077 (0.141)
연령제곱	-0.001** (0.0005)	-0.005*** (0.0003)	0.001 (0.001)	0.001 (0.002)
교육년수	0.025*** (0.004)	-0.017*** (0.002)	0.031*** (0.005)	0.009 (0.007)
대도시거주여부	0.038** (0.017)	-0.048*** (0.011)	0.059*** (0.021)	0.002 (0.027)
결혼에 대한 가치관(IV1)		0.037*** (0.006)		
종교유무(IV2)		0.037*** (0.011)		
성장시절 母의 취업여부	0.004 (0.017)		-0.0006 (0.018)	-0.010 (0.024)
상수항	-0.778 (0.576)	-6.394*** (0.038)	1.856 (1.572)	1.833 (2.200)
표본 크기	3,169	3,169	3,169	1,816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종교가 있는 여성일수록 결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와도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유무가 취업유무보다는 결혼비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종교유무가 결혼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 결혼여부의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표5>의 (2)열은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의 1단계로 결혼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도구변수와 외생적 설명변수들을 통해서 OLS 추정된 결과 값이다. (2)열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변수로 사용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종교유무는 결혼여부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열에서 도출된 결혼여부 적합값(predicted value)을 이용하여 (3)열에서 결혼여부가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앞서 기대한 방향(-)과 반대의 부호(+)가 도출되어 오히려 결혼한 여성일수록 취업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년제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 여성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해서 분석할 경우,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미혼여성보다 약 7.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치는 <표5>의 (4)열의 결혼여부 추정계수를 보면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33.7%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도구변수를 통해 역 인과관계를 제거하고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순효과만을 나타내는 추정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전체여성의 경우 결혼여부 추정계수에 있어서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확률이 더 높고,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결혼 후에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여성 대상과 고학력 여성 대상, 두 경우 모두 결혼여부 추정치에 있어서 유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으로 인해 표준오차가 증가하여 결혼여부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상실되었을 가능성과 도구변수로 사용결

혼에 대한 가치관 및 종교여부가 내생변수인 실제 결혼여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6>는 앞선 세 가지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다르게 4개년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표6>의 (1)열을 보면 주요 설명변수인 결혼여부의 추정계수를 보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전

<표6>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모형)

변수	(1)	(2)
	취업여부	(고학력자 대상) 취업여부
결혼여부	-0.043 (0.083)	0.003 (0.067)
연령	0.045*** (0.003)	0.034*** (0.003)
T-1기 결혼*전년도취업	0.116** (0.049)	0.052 (0.054)
T기 결혼*전년도취업	-0.055 (0.097)	-0.232*** (0.067)
T+1기 결혼*전년도취업	0.117*** (0.018)	0.073*** (0.019)
전년도취업여부	-0.197 (0.146)	0.110*** (0.056)
상수항	-1.143*** (0.126)	-0.761*** (0.153)
표본 크기	7463	4041
Number of id	2,500	1,424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추정치들보다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횡단면 추정치들에 음(-)의 선택편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설명변수로 시차종속변수와 시점별 결혼여부와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이를 통해, 결혼 여부가 여성의 현 시점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결혼 시점과 전기의 취업여부에 따라 여성의 취업여부에 상이한 영향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다음 기에 결혼을 할 여성일 경우에 금기에 일을 할 확률이 1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금기에 결혼할 여성인 경우 금기에 취업상태에서 이탈할 확률이 5.5%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에 결혼을 했고 일을 하던 여성일 경우 현 시점에 일을 할 확률이 11.6%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일할 확률이 높으며, 결혼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을 하면서 이탈하지 않은 여성일 경우 일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의 (2)열은 고학력여성만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반복한 결과이다. 교차항들의 추정계수는 방향에 있어서 전체 여성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고학력 여성이 금기에 결혼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은 23.2%로 (1)열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이탈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고학력

<표 7> 결혼여부 추정치 비교

	횡단면 자료 이용			패널자료 이용
	(1)다중회귀	(2) PSM	(3) IV활용	(4)고정효과모형
기혼여성 (준거집단: 미혼여성)	-0.326***	-0.088***	0.083 -0.074(고학 력대상)	-0.043

주: 괄호 안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여성으로 인한 인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년도 취업상태일 경우, 현 시점의 취업률을 유의하게 11%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는 총 4가지 분석 방법으로 시행한 추정치들을 요약한 결과이다.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추정치보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치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할 경우 관심 변수에 대한 유용한 정보마저도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측정오차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점을 감안하면 고정효과모형이 보이지 않는 개인들의 이질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여부 추정치에 대해서 방법론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여성노동공급에 있어서 고용률 증진 정책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고용률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 점과 또한, 이전에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이 출산과 보육에만 초점 맞추어 온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여성의 생애 주기적 사건 중 출산이 아닌 결혼의 영향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결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순히 결혼여부만을 설명변수로 취업여부를 분석했을 때,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을 약 36.7% 낮춘다는 결론을 얻는다. 하지만, 내생성문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음의 효과를 미치나, 그 정도에 있어서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향점수매칭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는 결혼이 취업률을 약 8.8% 낮추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결혼이 여성의 취업률을 약 4.3%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서,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혼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과대 추정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편의를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결혼의 음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결혼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로써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춘 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노동공급 증진 정책에 있어서 결혼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또한 고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여성노동공급 증진

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직 잔재하는 사회적 차별의 분위기나 가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근무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의 내적인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적극적인 경제활동 의지가 부족하거나 배우자를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 인식하여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며, 여성이 가사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분화 된 성역할가치관을 가지는 등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나 육아 휴직 지원 등의 정책은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탈 기제를 제거해 주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하리라 예상 되지만, 여성의 인식적인 개선을 고려한 개혁안을 추가로 시행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위에서 언급한 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혼인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변수 중 가구 소득 수준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통제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구소득수준이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가 포함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고려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김우영,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1), 2003, pp.67-101.

김주영·우석진,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김지경·조유현,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6(3), 2003, pp.181-201.

민세진, 『여성고용률 제고방안: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유홍준·현성민,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2001, pp.75-101.

은기수·박수미, 「여성취업이동경로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분석」, 『한국인구학』, 25(2), 2002, pp.107-138.

이상호·이상현, 『저출산 · 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경제연구원, 17(3), 2011

이진경·옥선화,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10(3), 2009, pp.59-83.

이혜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변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조윤영,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모형』, 한국개발연구원, 2006.

최효미, 「KLIPS에 나타난 출산의 특징과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 『노동리뷰』, 200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Mark R. Killingsworth and James J. Heckman,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Vol. I, 1986.

Raquel Fernández, "Women, Work, and Cultur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5(2 - 3), 2007, pp.305 - 332

Rosenbaum, P.R. and D.B., Rubin,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1983, pp.41-55.

Abstract

The Effects of Marriage on Women's Labor Supply

Hur, EunJee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effect of marriage on women's labor supply is analyzed. Despite numerous previous labor market policy efforts to enhance female labor supply, the unchanging statistics call for thorough evaluation of the recent policy directions, including a more precise analysis on why many female workers leave the labor market. In most related papers, this issue is approached by focusing on child-rearing and childbirth as important factors of a low female presence in the job market. However, such analysis bypasses the married women who exit the labor market before they give birth. In effort to overcome such previous literature's shortcomings,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marriage plays a pivotal role in female workers' withdrawing from the labor market. The key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tackle the endogeneity problem, that is, the revers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r supply and marriage.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were the four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data. For the purpose of

addressing the endogeneity bias, various estimation methods, such as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re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arriage has a negative effect on women's labor supply irrespective of the analysis method employed. Also, I find that previous research with no consideration of endogeneity problem overestimated the effect of marriage on female labor supply.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marriage is one of the major factors behind women's career decisions, but its magnitude is not as great as what the previous works have found.

Keywords: marriage, female labor supply

Student Number: 2013-20174